



10월 27일, 교내에서 개최된 중국학부 취업캠프 (주관: LinkStart)



## 중국학부 소식

News

### ● 부산외대 중국학부, 2024년도 수시 면접고사 진행

10월 14일, 부산외대는 2024학년도 수시 면접고사를 진행하였다. 부산외대는 2024년도 입학생부터 자유전공제를 도입하였다. 즉 무전공 입학 후 1년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 탐색을 한 후에 2학년 진학 시 원하는 전공을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수시 면접고사에서 학생들은 통합 모집으로 신청하였지만, 면접 단계에서 부터 관심있는 전공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진행되었다. 수험생들은 수시 면접과 동시에 진로 상담이 가능했으며, 중국학부에 관심있는 수험생들은 면접에서 자신들이 희망하고 있는 중국 관련 전공 이수 방법과 융합 전공 설계 등에 상담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외대 자유전공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수시 경쟁률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면접고사 결사율이 작년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면접고사 참여 학생들의 관심과 의지는 어느 해보다 높았다고 평가된다.

## ● 중국학부, 중국문화 체험교실 실시

중국학부는 9월 21일부터 비교과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국문화 체험교실을 시작했다. 4차로 나뉘어 진행된 체험 수업에서 20여명 재학생들은 월병 만들기, 매듭·전지·사탕 공예 등을 배웠다. 이호영, 순치, 두금비, 이소현 담당 교수님들과 1:1로 이루어진 이번 체험 학습을 통해 교과서 밖에서 중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 BUFS 중국문화체험교실

중국 전통문화부터 가장 최근의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3학년도 중국학부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2023년 9월 21일 | PM 5:00 | 월병 만들기

2 2023년 10월 26일 | PM 5:00 | 매듭 공예

3 2023년 11월 9일 | PM 5:00 | 전지 공예

4 2023년 11월 23일 | PM 5:00 | 사탕 공예

\* 두 개 이상의 회차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장소: D317 강의실    신청 방법: 구글 폼 작성

참여 혜택: 1회 참여 시 NOMAD지수 2점씩 부여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총 8점)

문의: 중국학부 051) 509 - 5799



## ● 중국학부, 맞춤형 취업캠프 개최

중국학부는 10월 27일, 교내에서 취업 및 진로전문 교육업체인 링크스타트(LinkStart) 주관으로 학부 맞춤형 취업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캠프에는 3학년 및 4학년 재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취업 환경과 직무 교육, 오후에는 조별 실전 모의 면접, 자기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 대담’ 수업에서는 중국 내 소비시장 및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지를 파악했으며, ‘직무, 기업 이해 기반 취업준비 전략’ 수업에서는 변화 되고 있는 채용 트렌드 소개를 통해 블라인드 및 수시채용, AI 역량검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직무별 면접 노하우를 학습하는 기회를 통해서 영업관리, 마케팅, MD, 구매, 물류 등 학부 재학생 맞춤형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김동하 중국학부장은 “엔데믹 선언으로 오프라인 면접이 일상화 되는 이때에 중국학부 맞춤형 취업캠프를 통해 소위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는 3학년, 4학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에 효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 조소군 교수, 중국학부 서비스 러닝 과목 운영

중국학부는 2023년 2학기에 주요 어학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러닝 과목을 운영했다.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은 교과목에 지역사회봉사를 통합시킨 교수-학습방법이다. 정규 수업과 연계하여 미리 설계된 체계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수업에서 배운 지식에 대한 고찰, 피드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천적 전문성과 학습성과를 향상시킨다. 이번 서비스 러닝 과목은 중국학부 원어민 교원인 조소군 교수 주도로 실용중국어실습 II, 중국어읽기2 분반 수강생들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봉사 대상기관은 부산시 부전동에 위치한 뉴스타일성형외과의원(원장 하성욱)으로 활동 주제는 '병원의 중국어 홈페이지 제작'으로 정해졌다. 동 병원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본 과목을 담당한 조소군 교수는 '현장 방문을 통해 병원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병원장 인터뷰를 통해 홈페이지에 담을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는 경험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참여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 장윤서(중국학부 2019학번), 2023 동북아청년 지속발전 연수캠프 참가

중국학부에 재학중인 장윤서 학생(4학년)이 2023년 10월 15일부터 7일간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3 동북아청년 지속발전 연수 캠프에 부산시 대학생 대표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동북아 10개국(한국·필리핀·몽골·러시아·베트남·싱가포르·캄보디아·일본·말레이시아·중국) 출신 청년 35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다롄선물거래소, 중국SK하이닉스 반도체와 다롄미술문화박물관 등 산업, 문화 영역을 두루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 캠프는 중국송경령재단과 SK그룹이 '청년기금'을 설립하여 2021년부터 중국 내 10여개 지역에서 동북아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캠프 목적은 동북아 청년 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적 시각 배양이다. 장윤서 학생은 "캠프 폐영식 포럼 발표에서 한국 청년들이 가진 동북아 지역 내 각국의 공통 발전과 평화에 대한 견해에 많은 참가자가 동의를 표한 것이 인상 깊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조별 토의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다롄 도시개발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첨단기술(AI, 반도체)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 참가를 계기로 졸업 후에도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 마스다 카논(중국학부 2020학번),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저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온 마스다 카논(増田花音)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외대 입학하기 전에 일본 국제코토바학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엔데믹이 되면서 4학년이 된 저는 졸업 전에 꼭 제가 배운 중국어와 한국어를 활용할 인턴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금년초 부산외대는 서울에 있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결과 인턴쉽 프로그램이 생겨 제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TCS는 2011년 한중일 3국이 경제, 통상, 정치, 안보, 사회, 문화, 청소년, 스포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해 서울에 개설한 국제기구입니다. 저는 2023년 여름방학 두 달 동안 TCS에서 DOP 부서 PR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주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중국학부 재학생의 능력을 살려 중국어나 영어 번역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TCS는 유튜브, Instagram, Twitter 등 SNS에 글도 올리기 때문에 PR 관련 유튜브 원고를 작성하거나, 트위터 팔로우 통계를 조사하거나, TCS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보도를 찾고 정리하는 것도 제 인턴 업무였습니다.

TCS가 국제기구인 만큼 국제 회의, 세미나 참석 기회도 많았습니다. 제 인턴 기간 중 한중일 지진 관련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지식을 한국이나 중국에 알리고, 큰 지진이 왔을 때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국 전문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토론,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미력하나마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싸”인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로 진행되는 게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행한 마지막 업무는 TCS 사무총장 송별식과 신입총장 환영 리셉션의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 오신 많은 내외빈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사용해 안내 했습니다. TCS는 정규직이나 다른 인턴 분들 포함해서 모두 3개국어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학에 대한 학습 의욕이 높아지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혼자 서울에 두 달 동안 체류하면서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자신감도 배양되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어떻게 루틴을 보내는지 경험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꼭 카페에 가는 것, 항상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신기했죠. 일본에서 점심은 혼자 먹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의 중국어와 한국어 실력이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어떤 직장에 가든 자신감 있게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인턴 경험의 가장 큰 결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일중 3국의 가교 역할이 되겠다는 것이 새로 생긴 제 꿈이기도 합니다.



▲ 인턴 활동 중 참여한 TCS 행사. “TCS Farewell and Welcome Reception 2023”, (2023.08.28)



## ● 중국 유행어 한 마디

김정훈 교수

鸭梨山大 (yā lí shān dà) :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鸭梨 yā lí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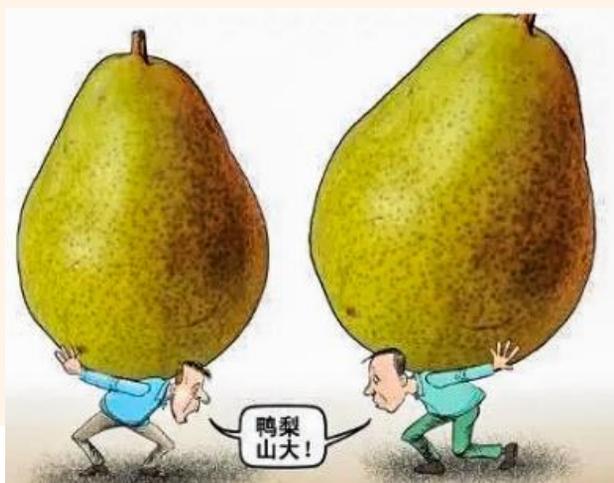
중국어로 ‘스트레스’는 ‘压力(yā l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鸭梨(yā lí)’가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유행어로 변신하게 된 걸까요?

원래 ‘鸭梨(yā lí)’는 오리 모양의 과일 ‘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다 어느 날 중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百度(bǎidù) 게시판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급속히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 발음은 같지만, 글자의 모양과 의미가 전혀 다른 현상을 ‘해음 현상(谐音 xiéyīn)’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서 중국어 입력기로 ‘스트레스’란 뜻의 ‘Ya li’를 입력하면 제일 먼저 뜨는 단어가 ‘压力’였어요. 그런데 百度 게시판에서 누군가 실수로 ‘压力(yā lì)’라는 단어를 ‘鸭梨(yā lí)’로 바꿔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재미 삼아 이 글자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록 같은 발음이지만 ‘스트레스’라는 골치 아프고 우울한 뜻의 ‘压力(yā lì)’보다, 맛있고 귀엽게 생긴 오리 모양의 과일 배 ‘鸭梨(yā lí)’가 스트레스로 찌든 요즘 사람들에게 해학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전달 해줌으로써 골치 아픈 스트레스(压力)를 과일 배(鸭梨)로 해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생긴 다른 표현은 최근 취업과 물가 상승으로 더욱 스트레스가 커진 중국의 젊은 층들이 ‘알렉산더’의 음역인 ‘亚历山大(yà lì shān dà)’를 같은 발음인 ‘鸭梨山大(yā lí shān dà)’로 대신하여 현재의 삶이 ‘산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라고 냉소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바이두 이미지 D/B © 2023.

● **피크 차이나 (Peak China)**

 **김동하 교수**

중국의 성장세가 정점에 달해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는 의미인 피크 차이나는 중국위기론의 또 다른 표현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5년에는 25년만에 처음으로 성장이 7%이하를 기록하고, 주식이 42% 폭락했을 때도 중국위기론은 등장했다. 최근에는美정치학자 할 브랜즈, 마이클 베클리의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2022)'에서 인용되었다. 근거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외자기업 탈출 등이었다. 실제 COVID-19 때문에 2022년 중국 GDP 성장은 3%에 머물렀고, 이후 '피크 차이나론'이 재확산된다. 2023년이 되어서 '리오프닝' 즉 제로 코로나 정책(봉쇄)을 중지했으나, 여전히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처방으로 내수부양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기업들의 높은 부채율, 떨어진 수요, 인프라 기건설로 인해 반등이 쉽지 않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은 중국 국민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에 몰두하고 있다. 2020~2022년간 가계저축률은 2019년 대비 2~4%pt나 올랐다.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현재 중국경제는 '빨간불'까지는 아니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이와 다른 낙관론의 배경은 ① 유럽 0.9%, 일본 1.4%, 한국 1.5%, 미국 1.8% 보다 여전히 높은 중국의 고성장('23년 5% 이내), ② 중국경제 절대규모 증가 효과: 장쩌민 시대 GDP 1%=60억\$, 후진타오 170억\$, 시진핑 1기 960억\$, 시진핑 3기 1940억\$. 쟁3기('23) 1% 성장=江 31% 증가(31배) 등이다. 다만 헝다(2021.9), 비구위안 사태(2023.8)로 불거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야기된 문제는 美·EU 역내 공급망 강화정책,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 中제조기업의 동남아 이전 등으로 우리나라 무역구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KNN 명품 강의 채널 [캐내네 스피치] 2023. 9. 25. ▶  
[영상 다시보기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2SMFHuU-i7s&t=20s>



**뉴스레터 공지사항**

Notice

● 중국학부 인스타그램 계정 (bufs\_china) 오픈  
중국학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소식과 사진을 이제 인스타에서도 만나보세요.

● 중국학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안내  
우리 학부에 관한 최신 정보는 우측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